철강협회 회장단 간담회

모 두 발 언

2017. 4. 27. (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 형 환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철강협회 권오준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최근 들어 우리 철강산업의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계 철강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해
구조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2016년, 전 세계의 철강 설비 규모는 약 23.9억 톤인 반면,
총 수요는 약 16.4억 톤에 불과함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인해,
철강 무역 분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서도, 최근의 철강 무역 문제는
글로벌 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글로벌 철강 포럼'을 구성하여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한편, 주요 철강 생산국 중 유일하게 순 수입국인 미국의 경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재 전반에 대하여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마저도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6대 철강 생산국인 우리나라도
그간 선제적으로 설비 조정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의 절반(42%)에 가까운 높은 수출 비중으로 인해,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철강 공급과잉과 국가간 무역 갈등은
미국 등 일부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 그간의 대응 성과 >

그동안 정부는 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수입규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최신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또한, 장, 차관을 포함한 다각적인 양자 협의채널을 활용하여
상대국 조사기관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도에서는 후판과 열연, 냉연에 대한 반덤핑 판정에서
우리 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참조가격 수준이 적용되었고,

베트남의 한국산 도금강판 반덤핑 조사에서는
현지 투자기업 수요 제품이라는 우리측 주장이 반영되어,
예비판정보다도 낮은 수준의 덤핑 마진율이 부과되었으며,

멕시코와도 자동차용 냉연강판 쿼터를
상당 폭 증량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의 수입규제와 관련해서도,
본인이 미 상무장관, USTR 대표 등 주요 인사들 면담 계기에,
그리고, 통상담당 차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기회 등을 활용하여,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얼마 전 후판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최종판정에서는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마진율이 부과되기도 하였습니다.

< 앞으로 대응 방안 >

앞으로도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계와 함께,
불공정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대응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현재 차관급으로 운영 중인 "민·관 수입규제 TF"를 확대하여,
통상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그리고 국제통상 관련 학계 인사 등을 대폭적으로 포함하여,
실시간 정보 공유,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
대응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에 대한 법률 자문 등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동 검토과정에 미측이 고려할 요소로 지목하고 있는
외국 철강업체가 미국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
수입 등 철강제품 대체로 인해 야기되는 실업자, 정부 세수감소,
투자 및 기술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대응논리도 철저히 마련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고위급 및 실무차원의 양자협의채널과 병행하여,
WTO 반덤핑, 보조금 위원회 등 다자간 협의채널을 통해,
우리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법리적인 공론화 등 국제적인 공조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협의과정을 통해
그간 우리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취한 공급과잉 해소 노력과
구조조정 성과를 설명하는 한편,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과도한 수입 규제는
자국내 한국 투자법인 뿐 아니라 현지 수요기업들의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철저한 논리를 가지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무리한 징벌적인 관세 부과(AFA), 또는 국내 가격을 부인하고 과도한
덤핑률을 산정(PMS)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WTO 제소도 배제하지 않고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적으로도, 불공정한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에 따른 무역구제 조치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계에 대한 당부 말씀 >

철강업계에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의 수입규제 강화 기조는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현재, 업계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고경영자 차원에서 보다 큰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통상 대응을 위한 인력을 최대한 보강하고,
현지 로펌과 전문가 집단 등 외부 역량도 확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수입규제국가가 조사 비협조 등을 이유로
과도한 징벌마진을 부과하는 조치를 예방할 수 있는 한편,

불합리한 판정 결과에 대해서는 현지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현지 구제절차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인 대응 역량도
미리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상대국 업계의 제소가 수입규제 조치의 발단이라는 점에서
업계 차원에서도 해외 업계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통한
사전적인 설득 노력을 병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이 용이하지 않거나,
경험과 정보 부족 등으로 대응에 곤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철강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수입규제 조치에 공동 대응하도록 지원하고,

그간 개별적인 수입규제 대응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대응 매뉴얼' 도 제작하여,
업계간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구조적인 공급과잉에 빠진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설비 조정, 사업 전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고급 강재, 경량 소재 등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수출이 특정 품목, 특정 국가에 치중되지 않도록 대안을
강구하고, 변화하는 비즈니스 흐름에 따라,
현지생산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맺음 말씀 >

존경하는 철강업계 관계자 여러분,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철강 수입규제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는 바로 팀워크" 라고 했습니다.
(Teamwork is the fuel that allows common people to attain uncommon results)

모쪼록,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우리 철강업계가 당면한 난관을 무난하게 극복하고 크게 성장하는
"비범한 결과" 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